

의미의 선명화를 위한 번역담화상 잉여성의 문제

원 영 희
(성균관대)

*He is Translator's thief that addeth more
As much as he that takes from the store
Of the first author. ...*

—Andrew Marvell

1. 들어가며: 첨가와 선명화

번역에서 '장황성' 혹은 표현의 '잉여성'은 목표언어권 독자 입장을 고려하며 번역문을 다룰 때 주로 발생한다. 원문의 '진의(眞意)'와 상관없이, 번역문이 읽기 편하여 원문 의미 전달이 수월한 듯 읽히는 번역의 경우 흔히 원문 전체에 대한 번역가의 충분한 해석과 공들인 글쓰기의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번역가가 원문을 해석하는 과정과 그 단계가 복잡할수록 번역문은 원문보다 더 장황하게 변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독자를 염두에 두고 가독성 있는 글을 만들려는 '선명화' 작업을 할수록 원문에 번역가의 의도가 개입된다. 따라서 함축 의미가 있는 원문을 목표언어권독자가 번역서를 통해 그 원래 의미를 수월하게

바로 이해하도록 배려한 ‘선명화’ 번역 작업을 할수록 번역문은 첨가로 인한 잉여성의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불필요한 언어 요소 첨가와 중언부언(重言復言)으로 원문보다 장황하게 되어 원래 원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변형되기 때문이다.

쇼사나 블럼-쿨카(Shoshana Blum-Kulka, 300)는 논문 「번역의 결속성과 통일성 전환」에서 “목표언어본문에서 결속적 선명도를 상승시키면 잉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잉여성 혹은 장황성을 블럼-쿨카는 ‘redundancy’로 쓰고 있는데, “선명화 가설”(the explication hypothesis)을 처음으로 이론화하여 원문에서 번역문으로 옮길 때 결속상의 명확함을 요구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실험을 통해 “장황함은 번역문의 결속적 명확함의 수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독자에게 성공적으로 의미를 전달한 번역문일수록 의미 구조는 ‘선명함’만큼 문장 구조적 ‘장황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말처럼 “명확성은 번역과정상 고유한 요소”이며 가독성의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번역 전략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선명화 노력으로 원문에 번역가의 의도가 개입되어 번역담화상 잉여성을 내포하게 되어 과잉번역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데 있다.

브라이언 모쑹(Brian Mossop, 44)은 이 ‘잉여성’을 ‘개념의 반복’과 같은 말로 보며 글의 주제에 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독성이 있는 글을 만들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다. 언어학자 해드모드 버스마만(Hadumod Bussmann, 400)은 잉여성의 규칙(redundancy rule)을 어떤 특성을 ‘삽입’하는 경우로 정의하며 일반적인 규정의 특수화를 위한 변형문법의 한 규칙인데, 이 경우 글의 음소론적, 통사적, 의미론적 차원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잉여성’과 동의어인 ‘장황성’은 보다 선명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효과적인 담화상의 첨가현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원문과 번역문 혹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두 언어의 문제인 번역에 있어서 한쪽 언어, 특히 번역문 소통의 문제를 강조하여 번역과정에서 실제 원문보다 지나치게 부풀리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다.

한편, 비네이와 다블넷이 정리하듯이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함축화’번역에서는 생략으로 인해 원문에 존재하던 결속성이 떨어지고 난해한 번역문이 된다.(Vinay & Darbelnet 1958; Baker 1998, 80 재인용) 따라서 첨가와 선명화, 생략과 함축화는 그 빈도에 따라 각각 정도가 상승 혹은 하강하여, 서

로 비례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역시 이런 번역현상을 인식한 유진 나이더(Eugene Nida, 227)는 ‘선명화’를 번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첨가’의 특수한 경우로, ‘함축화’는 ‘생략’의 특수한 경우로 구분했다.¹⁾ 번역문의 잉여성 혹은 상황성의 요인은 바로 번역가의 능동적인 ‘첨가-선명화’의 노력으로 발생하며, 그 결과물은 원문에서 멀어지는 대신 독자에게 좀더 의미가 선명한 번역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장단점이 공존한다.²⁾

대부분 첨가는 확대번역을 부르고, 생략은 부분번역을 부르기에, 바르쿠다르보(Barkhudarvo, 223)는 이런 첨가와 생략 현상을 ‘변형’³⁾의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선명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변형과 그 활용의 문제로 연결된다. 번역에서 변형 불가피성이 두 언어 문장 구조상, 혹은 문화적 이질성으로 예견되기는 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말 그대로 두 언어의 구조적 차이나 문화적 상충으로 인한 변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되는 첨가나 생략으로 인한 변형은 각각 모든 담화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에 상존하는 ‘의미의 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충 편하게 번역한 결과이다. 비유가 담긴 문장이나 문장 속에 숨겨진 은유를 번역할 때 담화의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사이에 존재하는 명확한 ‘의미의 틈’을 이해하고 번역해야 한다. 뉴마크가 제시하듯이 원문의 은유표현을 번역할 때, 우선 그 은유가 “긍정 혹은 부정, 함축 혹은 직설”인지를 파악해야 한다.(105) 바로 이 양극의 이해 사이에 의미의 틈이 발생한다. 한 표현에 대한 양극단적 의미이해의 정도에 따라 그 틈이 더 벌어지거나 좁혀지기 때문이다. 번역과정을 대별하여 읽기와 쓰기로 나눌 때, ‘의미의 틈’은 당연히 읽기과정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번역가의 원어 실력과 독해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이다. 쓰기과정에서는 읽기과정을 통해 분석된 정보를 종합해 정확한 표현으로 옮겨야하는데, 읽기과정의 성실성 혹은

- 1) 나이더는 첨가의 형태를 생략표현 채워 넣기, 의무적 상술(詳述), 문법재구축, 확대, 수사적 질의에 응답, 분류사, 연결사, 원어에 존재 않는 번역어, 이중어 등 9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2) 따라서 앵글랜드 디미트로바(Englund Dimitrova, 1993)와 같은 학자는 아예 ‘첨가-선명화’(addition-explicitation), ‘생략-함축화’(omission-implicit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3) 바르쿠다르보(Barkhudarvo, 223)는 변형의 4 유형을 전치(transposition), 대용(substitution), 첨가(addition), 생략(omission)으로 구분한다.

실력 부족으로 의미의 틈이 큰 상태에서 쓰기를 실행하면 의도적인 첨가와 생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읽기과정을 훌륭히 마쳐 의미의 간극을 최소화한 번역가라도 쓰기과정에서 독자의 자발적 인지능력을 과소평가하여 지나친 친절을 베풀려 들면, ‘선명화’노력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번역문에 잉여성 혹은 상황성을 심게 된다. 반면, 함축화는 읽기과정에서 정보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쓰기인 번역에 임해 원작가의 의도를 왜곡하고 번역서 독자를 혼란하게 만든다. 실제로 첨가-선명화, 생략-함축화는 각각 불완전한 과잉번역, 생략번역의 근본 요인이기도하다.

이 논문에서 분석하는 본문은 번역에서 첨가-선명화, 생략-함축화를 일단 환영하지 않는 견해를 옹호하기 위해 선택한 예문이다. 특히 실제 번역과정에서 일어나는 첨가-선명화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원문보다 상황해지는 번역문의 잉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단지 생략보다는 첨가가 선명화에 흔히 기여하기에, 선명화의 문제는 생략보다 첨가의 문제로 집중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번역문 표현의 상황성 혹은 잉여성이 문제로 대두된다.⁴⁾

2. 첨가와 잉여성

‘선명화’는 번역가가 특별한 혹은 개인적인 의도에 따라 원문에 없는 언어 요소를 번역문에 첨가해서 원문의 의미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선명화’로 완성한 번역 결과물의 수용자인 독자는 원문의 함축미나 숨은 뜻이 모두 드러난 번역문으로 원문의 의미는 바로 수용하게 될지 몰라도, 원문과는 다른 형태의 글을 접하게 하고, 원문에 대한 외형적 경험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첨가행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선명화’는 과잉번역을 부르며

4) 모나 베이커(84)는 블룸-쿨카의 ‘선명성 가설’을 정리하면서 번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선명성-첨가 현상이 함축성-생략 현상보다 빈번하다고 말한다: “Though explicitations and implicitations, or additions and omissions, are inseparably intertwin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tendency towards explicitation is always stronger than the tendency towards implicitation.”

번안이나 개작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은 번역방법이 아니다.⁵⁾

번역은 피터 뉴마크(Peter Newmark, 1931)의 주장처럼 ‘정확성’이 생명이고, 탈레리 라르보(1881-1957)의 말처럼 ‘오역을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쓰지 유미, 184-186) 정확한 번역을 하려면 첨가-선명화, 생략-함축화로 인한 원문변형을 시작부터 차단해야 한다. 원문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번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원문 정독과 함께 번역담화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분석원문과 두 번역문이 번역평가를 통해,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결속성전환에 의한 번역문의 구조적 잉여와 통일성전환에 의한 번역의 의미적 잉여의 문제를 분석한다. 분석원문은 릭 워렌(Rick Warren)의 『목적이 이끄는 삶』⁶⁾ 2장에 나오는 소제목들과 두 번역문을 택하여 첨가-선명화-잉여성의 관계를 논하며, 실제 번역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2.1. 결속성전환에 의한 번역문의 구조적 잉여

원서 내용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명화는 통사적, 의미론적 언어구조의 차이에 지배를 받는데, 이는 바르쿠다로브가 주장한 ‘의무적 선명화’와도 통한다. 번역문에서는 원문을 문법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비문(非文)이 되므로, 선명화를 시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문이 담고 있는 실제

5) 과잉번역, 생략번역으로 인해 원문은 언어구조적, 의미적 차원에서 불확실한 모습으로 번역문에서 다시 태어나고, 왜곡된 채 독자에게 전달됨으로 인해, 번역문을 통해 원문은 늘 평가절하 된다.

6) 참고로 이 번역서 『목적이 이끄는 삶』(도서출판 디모데, 2004. 원서명은 *The Purpose Driven Life*. (Michigan: Zondervan, 2002) 번역자는 ‘고성삼’씨이다. 그런데 번역서 어디에도 고성삼 씨에 대한 소개가 없다. 원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독자를 위해 친절히 저자 릭 워렌 목사로부터 ‘한국의 크리스천 형제자매들에게’라는 편지를 받아 번역해 실었고, 이어 추천의 글을 두 사람으로부터 받아 실었다. 그런데 번역자에 대한 소개의 글이나 번역을 하며 받은 감동과 고통, 자신의 번역원칙 등에 대한 글은 책 어느 구석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번역가를 올바르게 대우하지 않는 출판계의 풍토는 시정되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본인의 다른 논문 "Forbidden Fruit?: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nstinct,"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Theory and Practice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ducation*.: 123-150)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소보다 더 많은 요소를 첨가해 부풀린 선명화가 구조적 잉여 즉 장황한 번역문을 낳는다는 데에 있다.

[원문]

- ①There are five great benefits of living a purpose-driven life:
- ②Knowing your purpose gives meaning to your life.
- ③Knowing your purpose simplifies your life.
- ④Knowing your purpose focuses your life.
- ⑤Knowing your purpose motivates your life.
- ⑥Knowing your purpose prepares you for eternity.

인생의 목적에 따라 인생의 원칙이 달라진다.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없듯이, 목적 없이 번역하는 경우는 드물다. 번역물의 목적에 따라 번역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학술서적이거나 문학작품이라기보다는 삶의 건강한 태도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생활안내서의 성격이 강한 서적이다. 따라서 번역문의 어투(tone)는 다정한 평서문이어야 한다. 다음 번역을 살펴보자.

[번역1]

- ①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 ②목적은 이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 ③목적은 알 때 삶이 단순해진다.
 - ④목적은 알면 초점에 맞춘 삶을 살게 된다.
 - ⑤목적은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 ⑥목적은 알 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 (*밑줄, 굵은 서체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

초벌번역가의 번역이다. 오역 없이 무난히 잘 정리한 번역이다. 안내서의 특성을 살린 서술어미도 자연스럽고, 반복되는“Knowing your purpose”를 번역에서도 어느 정도 살렸다. 영어와 한국어의 두드러진 차이인 대명사 ‘your’ 번역 여부는 일단 한국어 식으로 결속전환하여 모두 생략하고 있다. 보통 생략번역 역시 첨가번역만큼 불성실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의도적 생략이므로 불성실과는 거리가 있다. 한국어 구조상 대명사는 문장 구성상 많은 경

우 생략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 ‘you’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살펴보면 생략의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다.

Son: “I want to eat my snack, Mom.”

Mom: “You ate your breakfast five minutes ago, dear.”

엄마의 대답 중에서 줄친 부분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You ate your breakfast five minutes ago, dear.”

- (1) 너는 너의 아침을 먹었다.
- (2) 넌 아침을 먹었다.
- (3) 아침을 먹었잖아.
- (4) 당신은 당신의 아침을 잠수셨습니다.
- (5) 당신은 아침을 잠수셨습니다.
- (6) 당신은 당신의 진지를 드셨습니다.
- (7) 당신은 진지를 드셨습니다.
- (8) 진지를 드셨잖아요.

번역 (1)에서 (8) 중에서 (4)이하는 화자 2인의 관계상 한국어에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1), (2), (3) 중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느 것일까. 바로 대화체, 구어체라는 문장의 특성을 살려 번역한 (3)이 좋다. 번역(1)은 문어체 직역이며 문자 그대로 ‘you’를 두 번다 살린 번역이다. 만일 원문에 “you”가 유사체 “you” 혹은 작은따옴표 안에 담겨 “‘you’”로 표현되었다면 당연히 (1)에서처럼 ‘너’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록 ‘you’가 두 번 반복이 되었다 해도 (3)정도 번역에서 그 분위기가 온전히 살아난다. 즉 구조적 결속 전환으로 번역문에서 생략된 영어의 ‘you’가 어떤 문제도 일으키질 않는다는 영한 번역 담화분석상 특징적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각 언어에는 규칙을 넘어서는 습관적 표현이 있다. 우선 언어 유형적으로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주어-목적어-동사(SOV)의 순서를 따른다. 보통 경우 영어식으로 “너는 먹었다 아침을”은 보통 한국어 사용법과 거리가 있다. 국어학자 이지양은(15) 특히 한국어의 경우 근간 성분인 주어나 목적어가 아주 쉽게 생략되는 특성이 있어, 문법적 생략이 아닌 한 모든 문장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하는 영어와 구별된다고 설명한

다. 영어의 경우 명령문에서 주어와 생략되는 현상을 문법적 생략이라고 한다면, 국어에서는 문법적 생략이외에 상황에 의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성분을 쉽게 생략하는 화용적 생략이 빈번하다고 두 언어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두 언어의 습관이나 고유한 각각의 특성은 양방 번역에서 모두 살려야 하는 층위이다. 만일 원문이 정확성을 요구하는 성서나 문학 정전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의 원문은 독자에게 삶의 자세를 안내하는 지침서로 의미전달이 더욱 확실해야 한다.

본고에서 예로 든 본문의 경우 첫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문장에 모두 “your” 혹은 “you”가 1~2회 반복되고 있다. 번역가는 이 경우 문장의 요소를 살리느냐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살리느냐를 원문문체의 특성을 파악할 때 결정해야 한다. 구조보다는 화용적 요구가 큰 원문이라는 전제하에서 반복되는 대명사 “you”를 번역문에서 ‘그대로 살려야 하는 가?’라는 의혹은 “you”를 화용적 층위에서 생략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불식할 수 있겠다. 원문 ②와 ③만 초벌번역인 [번역1]을 기초로 화용적 생략 없이 번역해보자.

[원문]

- ② Knowing your purpose gives meaning to your life.
- ③ Knowing your purpose simplifies your life.

[번역0]

- ② 당신의 목적을 아는 것이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 ③ 당신의 목적을 알 때 당신의 삶이 단순해진다.
- (*밑줄은 모두 필자의 것임.)

한국어번역문에서 반복되는 “당신의”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 만일 “당신의”의 반복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면 인구어인 영어에 상당히 노출된 경험이 있는 청자이리라는 분석이 되겠다. 결속성전환에 의한 구조적 전환으로 대명사를 화용적 생략하는 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화적 요구로 설명한 적이 있다. “번역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은 두 언어 사이에 놓인 **문화의 이질성**이다. 우리는 글 중에서든 말속에서든 순위 어른을 ‘대명사’로 받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할머니 생신 카드에 적은 짧은 글—짧고도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거의 우리말인가

할 정도가 된—“Happy birthday to you, Grandma!”를 번역하라는 퀴즈를 낸 적이 있다. 40명중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할머니,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로 썼다. “From your grandson”은 “당신의 손자로부터.” 번역가는 이런 표현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원영희 2003, 25) 지나치게 영어에 노출된 학생들의 번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해석’이다. 번역에서 원문충실의 원칙은 문화적 이질성을 또 다른 하나의 한계선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초벌번역 [번역1]로 돌아가 첨가의 결속원칙을 지켰는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역시 숨어있는 문제가 드러난다. 원문 문장①을 가까이 들여다보자.

[원문] ①There are five great benefits of living a purpose-driven life:

[번역1] ①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다섯 가지 [?] 유익한 점이 있다. (*밑줄, 굵은 서체, 우사체, [내용]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

줄친 부분처럼 원문의 구조적 전치가 일어난 부분은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상 차이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굵게 한 글씨 부분 ‘누릴 수 있는’과 ‘한 점’은 불필요한 첨가이다. 원문의 구조를 살리기보다는 의미를 살리는 번역에서 흔히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 번역문에 원문에 없던 요소가 생기면서 장황해진다. 가능한 원문의 원래 모습을 포기하지 말고, 원문이 드러나게 번역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문으로 만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문 자체가 무게가 있는 삶의 안내서인 점을 감안할 때 한자어 ‘유익(有益)’을 사용한 점은 좋다. 그러나 ‘유익’은 ‘이익이 있음; 이로움’의 한자어이며 독립해 사용할 수 있는 명사이기도 하므로 ‘한 점’을 구태여 첨가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다. 필요 없는 첨가로 인해 번역문은 길어졌는데, 정작 원문에 있는 ‘great’는 빠뜨리고 말았다. 이 경우 번역가의 전략적 생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후의 원문 문장부터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표현 “Knowing your purpose”이 반복되고 있다. 당연히 번역문에서도 이 반복의 효과를 살려줘야 한다. 반복 효과 살리기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 문장②③④를 함께 살펴본다.

[원문] ②Knowing your purpose gives meaning to your life.

③Knowing your purpose simplifies your life.

④Knowing your purpose focuses your life.

- [번역1] ②목적은 **이는 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
 ③목적은 **알 때** 삶이 단순해진다.
 ④목적은 **알면** 초점에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밑줄, 굵은 서체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

원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뭉치와 번역문의 반복 말뭉치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원문에서는 동일한 구문 “Knowing your purpose”을 반복하는데, [번역1]에서는 “Knowing”에 대한 번역을 “이는 것, 알 때, 알면”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은 ‘목적’과 ‘이는 것’ 두 단어의 의미적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를 느낀다. 다시 말하면, [번역1]의 문장②는 ‘이는 것’이라는 행위 자체를 중시하는 느낌을 주고, [번역1]의 문장③은 ‘알 때’로 ‘목적은 아는 시간’을 중시하는 느낌, [번역1] 문장④의 ‘알면’은 ‘조건’을 제시하는 느낌이다. 번역연습의 단계에서 다양한 번역을 시도하는 자세는 좋지만, 최종 번역문을 결정할 때는 원문전체의 문체적, 의미적, 통사적 특성과 요구를 가능한 그대로 살리는 자세가 번역가가 숙지해야 하는 기본원칙이다. 이 글은 첫 문장이 말하듯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순응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큰’ 이로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문장②③④를 번역할 때는 모두 ‘조건’으로 통일해 표현하면 좋다. 아울러 문장②의 줄친 부분 ‘to your life’ 번역 ‘삶의’는 ‘삶에’로 고쳐야 한다. 다음 [번역1]문장⑤⑥ 역시 조건의 의미가 강하다.

- [원문] ⑤Knowing your purpose motivates your life.
 ⑥Knowing your purpose prepares you for eternity.

- [번역1] ⑤목적은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⑥목적은 알 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원문에 나오지도 않은 시간적 제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 ‘때’를 첨가해서 원문의 의미를 축소하고 한정하는 결과물을 낳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의미의 선명성을 의미의 제한으로 시도하느라 시간적 제한을 가리키는 ‘때’가 첨가되었는데, 오히려 의미를 축소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원어 해독 능력이 없는

독자라 하여 지적(知的) 수준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특별히 요구한 형식적 특성을 의미를 상하지 않는 한 번역문에서 살려줘야 한다.

2.2. 통일성전환에 의한 번역의 의미적 잉여

같은 원문을 이미 출판된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출판된 번역서의 번역인 [번역2]는 다음과 같다.

[번역2]

- ①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다섯 가지 [?] 유익이 있다.
 - ②목적은 이는 것은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 ③목적은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 ④목적은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 ⑤목적은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 ⑥목적은 앞으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 (*밑줄, 굵은 서체,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

출판된 번역서 역시 초벌 번역가의 번역만큼 밑줄 친 부분처럼 ‘변형’과 굵은 서체부분처럼 불필요한 ‘첨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모두 번역가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편집자의 취향에서 비롯된 선명화 시도에 근거한 표현상의 장황함 혹은 잉여요소 발생의 경우이다. 문장형식보다 의미전달이 우선일수도 있는 이런 종류의 지혜서의 목적을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첨가와 변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번역가 혹은 편집실의 번역 교열자들의 습관적 ‘치기’가 보다 더 뚜렷이 보이는 번역이다. 블럼-쿨카의 ‘선명화 가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칸다스 세기노우(Candace Séguinot, 108)는 “화용론과 선명화 가설”에서 선명화가 꼭 장황성 혹은 잉여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기노우에 의하면 ‘선명화’는 원문에 없던 어떤 요소가 번역에서 표현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원문에서 암시되거나 함축된 내용을 번역문에서 ‘명확히’(overtly) 표현하고, 원문의 어떤 요소를 번역문에서 좀더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다거나 강조하는 어휘를 선택해 표현하는 경우도 포괄한다. 따라서 두 언어의 구조적 문체적 차이로 ‘선명화’를 설명하기보다는 번역 교열가들의 편집전략에 의거해

첨삭(添削)된 정보로 선명성이 가중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번역2]가 바로 편집실 취향에 따라 번역교열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 한 문장씩 자세히 들여다보자.

[원문] ①There are five great benefits of living a purpose-driven life:

[번역2] ①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다섯 가지 [??] 유익이 있다.

(*밑줄, [??]은 모두 필자의 것임.)

우선 [번역1]과 같은 실수인데 ‘of living’을 ‘~르 때’로 옮김으로 인해 함축된 다양한 정보를 단순히 시간적 의미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한 ‘큰’, ‘중요한’, ‘특별한’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great’에 대한 번역 생략 역시 실수이다. 초벌 번역에서 잡지 못한 실수는 대부분 편집, 출판과정에서 잡힌다. [번역2]는 이미 출판된 번역서인 만큼 문장①의 경우, 생략을 통해 원문을 의도적으로 변형해 번역문에서 효과를 극대화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번역문에서 원문 구성요소 누락(lacuna)은 번역가의 실력의 문제를 떠나 불성실성을 증명하는 요인이다. 나머지 문장은 규칙적 반복을 살펴보기 위해 역시 한꺼번에 본다.

[원문] ②Knowing your purpose gives meaning to your life.

③Knowing your purpose simplifies **your** life.

④Knowing your purpose focuses your life.

⑤Knowing your purpose motivates your life.

⑥Knowing your purpose prepares you for eternity.

[번역2] ②목적을 아는 것은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③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진다.

④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된다.

⑤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⑥목적을 앞으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밑줄, 굵은 서체 등은 모두 필자의 것임.)

원문에서 반복된 ‘Knowing your purpose’를 [번역2]에서는 ‘~ 아는 것은, ~ 알면, ~ 알 때, ~ 앞으로써’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원문에 없는 문장구조상 다양성을 번역문에서 살리는 경우 역시 의미 전달 상 ‘선명성’을 위

한 번역가의 의도적 변형이므로 의미적 구조적 첨가의 한 예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짧은 서체 중 ‘②부여해’는 한자어인데, 역번역하면 ‘grant, bestow’로 원문의 동사 ‘give’보다 다소 무게가 있는 단어이다. 통일성전환의 예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의미층의 깊이 차원에서 일종의 불필요한 첨가가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의무적 선명화’의 일종으로 의미의 ‘선명화’를 위해 원문의 단어보다 좀더 ‘특별한 단어’를 선택한 경우이다. 그러나 번역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을 번역에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건 원문을 옮기는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번역가로서 에즈라 파운드가 제안했듯이 가능한 원문이 선택한 단어와 같은 무게의 번역어를 찾아야 한다.⁷⁾ 말의 무게는 보통 고어인가 현대어인가를 비교하는 시대성, 한국어와 영어의 경우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를 따지는 의미의 폭과 깊이, 또는 사용역 등을 그 측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위 본문 [번역2]에서는 원문의 단어 ‘give’보다 무게가 더한 ‘부여’를 사용하여 의미적 첨가를 통해 선명화를 시도했다. 단순히 ‘의미를 준다’ 혹은 ‘의미가 생긴다’는 번역표현으로도 원문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는데, 구태어 한자어 ‘부여(附與)’를 선택함으로써 번역가나 편집실의 현학적(衞學的) 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번역에서는 언제나 원문의 무게를 그대로 정확하게 살려야 한다. 번역가나 편집자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미화(beautification)하거나 추화(uglification)하는 건 의미차원의 첨가 혹은 감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 깊이의 첨가나 감축은 많은 경우 선명화를 가장한 자유번역, 과잉 혹은 생략번역이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③우리의’는 원문의 ‘you’을 그대로 살린 번역이다. 보다 개인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your purpose,’ ‘your life’에서 대명사를 살려 번역하는 조건은 문장 속에서 특별히 ‘개별성’을 강조할 때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설명한

7) 에즈라 파운드(Ezra Pound, 1885-1972)는 번역을 모더니스트 시적 가치를 계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번역에 ‘실험주의’를 도입한 시인이며 평론가인 파운드는 13세기 이탈리아 시인 구이도 카발칸디(Guido Cavalcanti)의 시를 번역하면서 “나는 아무 것도 발명하지 않았고, 다만 [번역어에] 원어와 동일한 ‘말의’ 무게(verbal weight)를 주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원어의 ‘말의 무게’(verbal weight)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번역어를 찾는 방법은 역시 파운드가 제안했듯이 “to preserve the fervour of the original” 즉 원문의 ‘열정’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Venuti, 32-34)

대로 영어-한국어 번역에서 대명사 ‘you’는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적 결속전환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생략된다. 게다가 예문 [번역2] 전체에서 번역어인 한국어 특성상 화용적요구로 공히 생략한 대명사 ‘your’를 문장③에서만 살려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기에 생략해야 전체 번역의 통일성을 지킬 수 있다. 블럼-쿨카의 또 다른 선명화의 하나인 ‘선택적 선명화’(optional explicitations)에서 말하는 ‘강조어 첨가’로 볼 수 있다.

번역문을 통해 원문의 구조를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은 언어나 거울의 역할 나아가서는 투명한 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프랑스로 번역한 발레리 라르보가 “번역가는 창작이라는 허영심을 버리고 번역이라는 겸손한 행위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 충고를 명심하는 번역가의 자세도 필요하다.(유미, 183) 이런 차원에서 사이어 페덴(Sayers Peden) 교수의 번역과정 이해에 대한 은유는 언제라도 유익하다.⁸⁾

전기냉장고 얼음틀에서 만드는 각빙(角氷) 혹은 각(角)얼음이나 얼음 조각(the ice-cube)은 ‘원문’(the original text)를 가리키고, 녹는 과정은 ‘읽기’(to read), 그리고 다시 어는 상태가 ‘번역’(to re-write, to translate), 다시 얼린 얼음은 ‘번역문’(the translated text)을 가리킨다. 비록 각(角)얼음의 모든 요소가 완전히 녹았다 다시 형태를 잡아가더라도 모든 요소는 틀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녹았다가 다시 언 새로운 얼음조각 내의 분자위치는 사방으로 바뀌었으나 모습은 여전히 같은 얼음조각이다. 특히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얼음조각이기도 하다. 번역의 과정엔 인지적, 심리적 정보습득과 이해의 지적인 과정도 포함되기에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다. 번역의 읽기와 쓰기의 과정 중에서, 읽기의 과정은 비가시적이다. 크리스토퍼 노리스(31)가 “해체는, 본문에 꼭 달라붙어 읽기를 하는 행위”라고 했듯이 번역에서 읽기는 해체의 자세이며 그만큼 본

8) 번역을 각얼음 형성과정으로 비유한 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During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ice] cube is melted. While in its liquid state, every molecule changes place; none remains in its original relationship to the others. Then begins the process of forming the work in a second language. Molecules escape, new molecules are poured in to fill the spaces, but the lines of molding and mending are virtually invisible. The work exists in the second language as a new ice-cube—different, but to all appearances the same. (16)

문에 전념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일단 쓰기의 과정으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가시적인 작업의 제약을 벗어날 길이 없다. 제1 언어의 언어적, 지시적, 의미적, 문화적, 전문적 특성을 제2의 언어인 번역어로 모두 살려내어 정리하여 외견상 똑같은 얼음조각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과정에 불순물이 섞이면 얼음조각은 투명한 얼음결 속에 그 불순물을 드러내거나 뿌연 결정체로 남게 된다. 바로 불필요한 첨가로 인한 원문의 왜곡으로 번역에서 원문의 의미가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워지는 현상과 같다. 녹인 얼음물의 일부를 제거함으로 얼음조각의 모양이 일그러지듯이, 불필요한 생략으로 원문의 모습이 일그러지는 변형이 일어난다. 얼음조각 재형성 은유를 통해 원문의 왜곡은 번역문의 상황성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을 재확인할 수 있다.

3. 나가며

원래 선명화이론 즉 ‘선명화 가설’ 연구는 블럼-쿨카가 자신의 논문 “번역의 결속성과 통일성 전환”에서 처음 체계화한 이론으로 담화분석에서는 기술적(記述的) 용어로 사용한다. 블럼-쿨카는 ‘선명화’를 주로 본문 표층적 결속성과 심층적 통일성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정리한다. 이외에도 ‘화용적 선명화’, ‘번역과정상 고유의 선명화’ 등이 모든 번역에서 항상 발생 가능한 ‘선명화’이다. 분석 [원문]에서 반복된 ‘Knowing your purpose’는 번역문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을 실행해야 한다. 시간이나 수단 혹은 행위로 제한한 기타 표현으로의 변형을 피하고, 모두 다음 [번역3]처럼 ‘목적을 알면’으로 조건을 살려주는 게 좋다.

[번역3]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다섯 가지 큰 유익이 있다.

목적을 알면 삶에 의미가 생긴다.

목적을 알면 삶은 단순해진다.

목적을 알면 초점에 맞춘 삶을 살게 된다.

목적을 알면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

목적은 알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밑줄과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임.)

목적은 원칙을 바로 지킬 때 훌륭히 달성된다. 번역의 궁극목적은 ‘원문보이기’ 혹은 ‘원문을 다른 언어로 살려내기’이다. 그러나 지나친 영문원문중심 번역으로 한국어에서 요구하는 화용적 생략조차 무시한 번역은 곤란하다. 모든 번역이론은 실사구시, 즉 사실에 근거해 진리와 현상을 탐구해 정리하여 더 나은 번역을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선명성의 이론 역시 번역실무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단, 라르보가 말한 대로 ‘겸손한 번역가의 자세’를 지키면서 상황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 구조상 없던 요소 첨가로, 혹은 의미의 층을 두텁게 하여, 구조적, 의미적으로 변형하여 번역한 결과, 쓸데없이 장황한 번역문이 산출된다.

두 번역문 분석을 통해, 번역문에 잉여성 즉 필요 없는 표현이 섞여 문장이 장황하게 된다고 하여, 꼭 번역이 자연스러워지고 의미도 좀더 정확히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번역가는 본문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기보다는 독자의 독자적 이해능력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원문의 모습을 살리는 번역을 해야 한다. 선명화를 위해 시도한 첨가와 장황함은 오히려 불필요한 변형을 초래해 의미를 왜곡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브라이언 모쑤이 말하듯이 “완전함이 곧 선명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103) 독자들이 이해하는 한 원문에서 함축된 의미요소를 번역에서도 함축된 상태 그대로 번역해도 ‘번역의 완전성’에 문제는 없다는 이론이다.

참고문헌

고성삼 옮김. 2004. 『목적이 이끄는 삶』.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Rick Warren).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Michigan: Zondervan).
- 원영희. 2004. 「창의성과 제약: 영역 고전문학 번역의 원칙」, 『어문학논총』제 23집: 335-35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간.
- _____. 2003. 『일급번역교실』. 서울: 한언출판사.
- _____. 2002. 「번역의 식민주의적 기능과 탈식민주의적 기능: 영한번역에 나타나는 대명사 ‘그’ 사용」, 『번역학연구』3: 1, 99-123.
- _____. 2001. 「한역성경의 표현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이지양 외. 2001. 「국어의 특질」, 『한국어와 한국문학』: 11-25. 서울: 새문사.
- 이희재 옮김. 2001. 『번역사 산책』. 서울: 궁리출판. (Tsuji Yumi. 1993. *Honyakushi no Promenade by Tsuji Yumi*. Japan: Misuzu Shobo Ltd.).
- Baker, Mona.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arkhudarvo, L. S. 1975. *Language and Translation*, Moscow: Mezhdunarodnye otnosheniya.
- Bell, Roger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Theory and Practice*. London & New York: Longman.
- Blum-Kulka, Shoshana. 1986/2000. “The Shift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ed. by L. Venuti.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ussmamann, Hadumod. 1996.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Translated and edited by Gregory Trauth and Kerstin Kazzazi. London: Routledge.
- Mossop, Brian. 2001.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Newmark, Peter. 1998(88).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 London: Prentice Hall.
- Nida, Eugene A. 1964.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0, 126-140.
- Norris, Christophe.r 1991. *De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Pound, Ezra. 1929. “Guido’s Relations,”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ed. by

- L. Venuti.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avory, Theodore. 1957. *The Art of Translation*. London: Jonathan Cape Thirty Behold Square.
- Sayers Peden, M. 1989. "Building a translation, the reconstruction business: poem 145 of Sor Juana Ines de la Cruz in Biguenet and Schulte (eds.) 1989. 13-27."
- Séguinot, Candace. 1988. "Pragmatics and the Explicitation Hypothesis," in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edaction* 1 (2): 106-14.
- Venuti, Lawrence. ed. 2000.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n, Young Hee. 2003. "Forbidden Fruit?: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nstinct," in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Theory and Practice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Education.*: 123-150.
- Tsuji. Yumi. 1993. *Honyakushi no Promenade*. Japan: Misuzu Shobo Ltd.

K C I

[Abstract]

Redundancy for Explication in Translation

Won, Young-Hee
(Sungkyunkwan University)

Redundancy in literary translation occurs when a translator considers the translated text's readership more than the original text during the process of translating. In this case the translated product might be comfortable to read since the translator makes its expression easier by add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than what the original text contains in order to transmit to the target readers. Thus, sentences could be longer and expressions more redundant. Even if the translated text can become naturally clearer than the original, there still is the problem of redundancy in meaning and structure which transforms the original into another non-distinctively plain literary piece.

In literary translation, one should avoid conveying an originally implicative expression into an explicit one through simpler sentences, or paraphrasing it in a linguistically redundant structure. Brian Mossop is always correct in stating that the perfect translation does not always demand explicitness.

This paper presents two illustrations on how to rescue original texts from the problem of redundancy in translation. Hopefully, it would show that the excessively cohesive shift creates structural redundancy while the wrongly coherent shift creates redundancy in meaning, as Shoshana Blum-Kulka(1986) first formulated "the explication hypothesis" and drew on concepts and descriptive terms developed with discourse analysis. She believes and explores explication connected with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The problem, however, lies in an act of addition for the sake of explication, as Candace Seguinot(1988) asserts that it "takes place not only when something

is expressed in the translation, which was not in the original, but also in cases where something which was implied or understood through presupposition in the source text is given a greater importance in the translation." These two scholarly studies are important guiding light for this paper. Each provides with the efficient strategies to avoid the redundancy problem in translation: an intimate reading the original text and a deeper study on discourse analysis of the translated text.

K C I

▶Key Words: explication, redundancy, translation, cohesion, coherence, addition, omission, shift, discourse analysis